

삼성, 스마트폰용 메모리서 또 ‘초격차’

풀HD 영화, 4초면 다운 끝!

(약 5GB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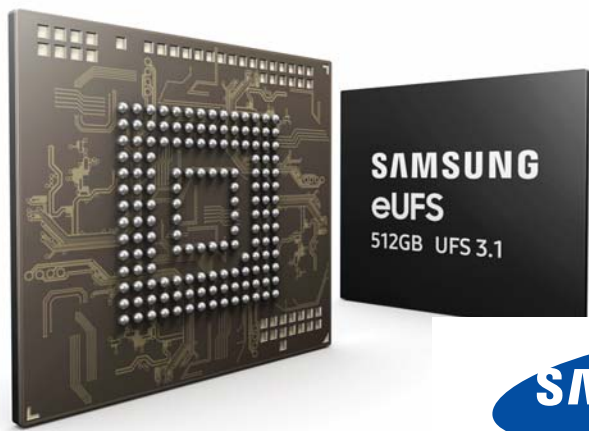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메모리가 또 다시 초격차를 벌린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12GB eUFS(내장형 유니버설 플래시 저장장치) 3.1(사진)’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eUFS 3.0보다 3배 빠른 2100MB/s의 연속 쓰기 속도를 자랑한다. SATA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탑재한 PC(540MB/s)보다도 2배, 마이크로 SD 카드 속도(90MB/s)보다는 10배 이상 빠르다.

연속 쓰기 속도는 스토리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를 뜻한다. eUFS 3.1은 5GB 용량의 풀HD 영화 1편을 약 4초만에 저장하는 수준으로 빠르다. 100GB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시간도 1분 30초에 불과하다.

스토리지 메모리와 기기간 초당 데이터 입출력 횟수를 가리키는 임의 읽기와 임의쓰기는 각각 10만 IOPS, 7만 IOPS로, 역시 종전 제품보다 성능을 높였다. 스마트폰에서도 8K 초고화질 영상이나 고용량 사진 저장 속도도 빠르게 처리하며 울트라 슬림 노트북 성



세계 최초 ‘512GB eUFS 3.1’ 양산 마이크로SD 카드 보다 10배 빨라 100GB 데이터 이동은 90초 수준을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 예정

능을 느낄 수 있다.

eUFS 3.1 제품은 512GB, 256GB, 128GB 3개 용량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올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 실 최철 부사장은 “메모리 카드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은 eUFS 3.1을 본격 양

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느꼈던 답답함을 말끔하게 해결했다”며 “올해 모바일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P1 라인에서 6세대 V낸드 양산을 본격화했으며, 중국 시안 신규 2라인(X2)에서도 5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하이엔드 스마트폰 대응력을 크게 제고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6년간 생존위해 질주 재난 뒤엔 희망찬 봄”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임직원에게 격려·당부 담아 메시지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불편함이 크겠지만, 서로 조심하고 격려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자”고 17일 밝혔다.

권 회장을 이날 그룹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과 유인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6년간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고, 대우조선 인수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듯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각 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코로나19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권 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타계 19주기를 맞아 생전의 모습이 더욱 가슴속 깊이 다가온다”며 정 창업자가 생전에 쓴 글 ‘새봄을 기다리며’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해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면 희망찬 봄이 찾아올 것”이라며 “계절의 변화로 찾아오는 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가올 봄을 기다리자”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4단계로 청정관리...LG ‘휘센 씽큐 에어컨’ 광고 온에어

필터 클린봇·UV LED 살균 등 에어컨 청정기능 필요성 강조

LG전자가 2020년형 휘센 씽큐 에어컨의 ‘4단계 청정관리’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다.

LG전자는 14일 2020년형 휘센 씽큐 에어컨의 새 TV 광고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광고 영상은 4단계 청정관리 기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필터를 시작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송풍팬까지, 에어컨 내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서 쾌적하게 유지해준다는 내용이다.



LG 휘센 씽큐 에어컨 필터 클린봇. /LG전자

구체적으로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극세필터를 알아서 청소하는 필터 클린봇과 한국공기

청정협회의 에어컨용 공기청정기 표준인 CAC 인증을 획득한 공기청정 기능, 에어컨 열교환기를 바람으로 말려주는 3단계 자동건조와 송풍팬을 상시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UV LED 살균 등이다. 아울러 사용자 활동량을 감지해 에어컨 스스로 운전모드를 최적화하는 3세대 인공지능 스마트케어 기능과, 기후변화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더 넓은 냉방 면적 등 신제품 차별점도 함께 소개했다.

영상은 씻으라는 엄마의 말에, 에어컨도 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이의 반문으로 시작하면서 에어컨 청정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SK가스, 산업체 에너지효율화 구축 첫발

프랑스 메트로사와 시기반 협업

SK가스가 산업체 대상의 최적에너지 공급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한 발 더 다가선다.

SK가스는 17일 프랑스의 에너지전문 AI솔루션업체인 메트로사와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고 AI·빅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업장 등 산업체 대상의 에너지효율화서비스를 국내에서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LPG와 연료전지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첨단 데이터 분석기술 기반의 에너지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는 종합에너지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됐다.

SK가스는 이번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존 에너지공급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되는 SK가스의 에너지효율화 서비스는 각 산업체에서 생성 및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AI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오퍼레이터들의 축적된 경험을 더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SK가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AI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과 생산과정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제어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제안한다. 여기에 현장의 경험 많은 오퍼레이터들의 노하우를 결합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숨겨진 효율 제고 가능 영역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지구촌 ‘귀’ 사로잡은 ‘삼성 사운드바’... 점유율 1위

5년 연속 수성...QLED TV와 시너지

삼성전자가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전 세계 1위 수성에 성공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운드바는 지난해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8%, 수량 기준 16.5%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이다. 2위 업체와는 금액 기준으로 8% 포인트 차이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사운드바는 지난해 전세계 판매량 1878만대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Q시리즈 사운드바다. 뛰어난 음질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는 삼성전



삼성전자는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1위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자 QLED TV와의 시너지 효과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특히 ‘HW-Q90R’과 ‘HW-Q80R’ 모델은 AV포럼과 트러스티드리뷰, 테크레이터와 포켓넷 및 HD구루 등에

서 평가 점수 만점을 받으며 2019년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2020년형 Q 사운드바에는 ‘CES 2020’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Q-심포니’ 기술도 적용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 /김재웅 기자

LG헬로비전 中에 ‘클라우드PC’ 서비스 확대

LG헬로비전이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제약으로 채택근무, 원격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클라우드PC 서비스를 출시한다.

LG헬로비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PC 서비스(DaaS)를 확산한다고 17일 밝혔다. 클라우드PC 서비스는 네트워크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개인화된 PC 환경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LG헬로비전은 솔루션 제공 파트너인 킬론과 손잡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PC 서비스(비전클라우드PC)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비용, 인력 등의 한계로 자체 인프라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스마트워크 솔루션 시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서른 계층까지 제공된다. 신청 시점부터 4월 말일까지 체험할 수 있다.

비전클라우드PC는 별도 설비 구축 없이 월 단위 과금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서버 구축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구축형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계정 기준 월 이용료 과금 방식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 이용료는 계정당 평균 3만원 내외다. /김나인 기자 silkni@